

경희대학교 송년회

Magnolia 2013

목련회의 · 목련음악회



2013년 12월 20일(금) 오후 6시 30분

경희대학교 평화의 전당

개관

21세기가 요청하는 미래대학. 그것은 학술의 탁월성을 바탕으로, 인류평화와 지구시민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대학입니다. '학술과 평화'의 경희 전통입니다.

2013년에도 경희는 '학술과 평화'의 전통을 창조적으로 계승했습니다. 특히 교육·연구에서 많은 성과를 거뒀습니다. 지구시민사회를 위한 사회공헌의 지평은 갈수록 넓어지고 있습니다. 국내외 기구와 손을 맞잡고 학술과 결합된 창조적 실천으로 고등교육기관의 공적 책임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경희인은 올해에도 다양한 분야에서 의미 있는 성취를 이뤘습니다.

이처럼 올 한 해 경희가 이룬 성과를 Magnolia 2013에서 함께 돌아보고자 합니다. 목련회의에서는 Review 2013 영상 상영과 목련상 시상에 이어 'Global TRUST, 경희의 꿈과 미래'를 발표합니다. 구성원 합창단, 음악대학, 예술디자인대학(포스트모던음악학과, 연극영화학과)의 아름다운 공연들이 어우러지는 목련음악회가 Magnolia 2013의 대미를 장식합니다.

2013년 경희는 학술과 실천의 창의적 결합으로 미래대학을 향한 열의와 의지를 다졌습니다. 밝아오는 새해는 대전환의 화두와 함께 경희의 교육·연구·실천 역량이 세계 정상으로 도약하는 원년이 될 것입니다.

프로그램

일 시 2013년 12월 20일(금) 오후 6시 30분

장 소 경희대학교 평화의 전당

<p>1부 목련회의 오후 6:30~7:30</p>	<p>Review 2013 영상 상영 목련상·특별공로상 시상 후마니타스칼리지: 새로운 삶의 가치, 창조적 도전의 꿈, 그리고... Global TRUST, 경희의 꿈과 미래 총장 인사말</p>
<p>2부 목련음악회 오후 7:50~9:20</p>	<p>하모니카 연주 포스트모던음악학과 이예영 음악대학 현악 8중주 Magnolia 연합 합창단 경희대, 경희사이버대, 경희의료원 교수·직원·학생 연극영화학과 The Muse 뮤지컬 하이라이트 포스트모던음악학과 경희 피스 재즈오케스트라 동문 문화예술인 다비치, G.NA, AOA</p>

초대

경희대학교는 올 한 해 경희의 변화와 창조를 이끌어온 구성원 여러분과 함께 Magnolia 2013(목련회의·목련음악회)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목련회의는 지난 한 해 경희의 발자취를 돌아보고, 새해 희망을 나누는 자리입니다. 이어지는 목련음악회는 구성원, 시민이 함께하는 소통과 화합의 제전입니다. ‘경희의 문화세계’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경희대학교 총장

조인원

Review 2013 영상

경희는 개교 60주년인 2009년부터 매년 목련회의를 개최하면서 Review 영상을 선보였습니다. 한 해 동안 경희 구성원이 함께 이룬 성취와 그 의미를 성찰하고, 더 나은 내일을 전망하는 희망의 메시지를 담아왔습니다.

올해 Review 2013 영상에 담긴 메시지는 '학술과 실천의 경희, 끝없는 도전'입니다.

1 '학술 경희'의 탁월성

올해도 의미 있는 성취를 일궈냈습니다. '세계적인 대학 건설', '경이로운 경희' 우리 모두의 꿈에 한 걸음 더 다가섰습니다. 경희의 높아진 연구 역량을 전 세계 학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2 학술진흥 2020

학술적 탁월성과 지구적 실천의 결합. 그리고 이를 통한 인류 공동체의 지속가능한 발전. 실천적 함의를 갖는 학술세계가 경희의 학술진흥 2020이 추구하는 가치입니다.

3 지구적 차원의 사회공헌

경희의 역사와 함께해온 사회공헌의 전통. 경희의 실천은 지구적 차원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올해 Peace BAR Festival을 맞아 반기문 UN 사무총장이 세계평화의 날 제정에 힘쓴 조영식 박사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며 평화를 위한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UN이 강조하는 평화를 위한 교육. 바로 경희가 추구하는 가치입니다.

4 혁신적 대학문화

2013학년도 입학식을 통해 혁신적 대학문화를 선보였습니다. 3일간의 입학주간에서 경희의 역사와 전통, 교육철학, 학문하는 자세와 생활규범 등 신입생이 알아야 할 지식과 정보를 공유했습니다.

5 2014 경희, 창조와 도전

경희는 공동체와 지구, 우주를 향해 열려 있습니다. 인간과 자연, 생명과 우주, 역사와 문명의 포괄적 이해를 근간으로 학문의 새 길을 열고 있습니다. 2014년 새해에도 경희는 세계적 명문대학을 향한 가지 않은 길에 도전합니다. 끝없는 진리 탐구를 통해 무한한 상상의 나래를 펼칠 것입니다. 더 나은 세상을 위해 지식의 실천적 가능성을 이끌어내는 큰 학문의 길을 열 것입니다.

목련상

인류사회의 보편적 가치 구현과 교시 '문화세계의 창조'를 위해 공헌한 구성원에게 수여되는 상으로서, 우리 대학의 교수 및 직원을 대상으로 합니다. 교육, 연구, 실천 공헌 세 부문에서 탁월한 업적을 이룬 인물에게 매해 연말 수여됩니다. 제정 첫해인 2009년에는 교육 부문에서故 이성호 교수(경영대학), 사회·대학발전 공헌 부문에서 유명철 석좌교수(강동경희대학교병원)가 수상했습니다. 2010년에는 연구 부문에 장진 석학교수(이과대학)와 손영숙 교수(생명과학대학), 사회·대학발전 공헌 부문에 김창환 명예교수(한의과대학)가 수상자로 선정됐습니다. 2011년에는 교육 부문에서 도정일 명예교수(문과대학), 실천 부문에서 조병춘 사무국장(기획위원회 사무국)과 최부영 농구감독(체육부), 2012년에는 연구 부문에서 이동훈 교수(대학원 우주탐사학과)가 목련상을 수상했습니다.



실천 부문



김중섭 국제교육원 원장

1993년 2명의 교환학생으로 시작한 한국어 프로그램을 20년 만에 매년 전 세계 90여 개국 6,000여 명의 외국인 및 재외동포가 입학하는 국제적인 프로그램으로 성장시키는 등 경희대학교 국제교육원을 세계 최고의 한국어 전문교육기관으로 성장시켰습니다. 1996년 정부 초청 외국인 장학생 사업을 필두로 한국국제협력단, 한국국제교류재단, 재외동포재단, 한국관광공사 등과의 사업을 유지해 경희의 국제화에 기여하고 위상을 드높여 유학생 다변화 면에서도 괄목할 성과를 거뒀습니다. 특히 국제교육원 한국어 프로그램의 성장은 1998년 본교 교육대학원 한국어 교육 전공 개설로 이어져 한국어 교육의 기반을 다졌고, 1999년에는 국내 대학 최초로 본교 외국어대학 내의 한국어학과 설치에 기여했습니다. 2004년에는 일반대학원에 한국어학 전공 석·박사 과정을 개설해 교육 전문가 양성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이를 통해 경희대학교가 세계 최고 한국어 교육의 메카로 위상을 확립하는 데 이바지했습니다.

약력

경희대학교 문과대학 국어국문학과 교수, 경희대학교 대외협력처장, 경희대학교 농구부 주무·코치·행정감독, 교육부 외국인 유학생 유치 관리 역량 평가 인증위원회 인증위원, 한국어교육기관대표자협의회 고문, 세종학당재단 이사, 다문화교류네트워크 이사장, GAVI 세계백신면역연합 한국사무소 연락대표, 주한일본대사관 한일문화 축제한마당 자문위원, 국제한국어교육학회 자문위원, 코이카(KOICA) 지구촌체험관 전문위원, 한중우호협회 이사, 재외동포 언론인협의회 자문위원, 한중교육교류협회 운영위원

선정과정

지난 10월 21일부터 12월 2일까지 부문별 후보자를 접수한 결과, 교육 부문 3명, 연구 부문 2명, 실천 부문 3명 등 총 8명이 접수했습니다. 부총장단, International Scholar, 교내외 전문가, 기 수상자가 후보자를 심사했고,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실천 부문 수상자로 김종섭 원장(국제교육원)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또한 우리 대학이 추구하는 가치와 철학에 부합하는 동문 중 대학 발전에 크게 공헌한 이건수 회장(㈜동아일렉콤)에게 특별공로상을 수여하게 됐습니다.

목련상 조형물의 상징성

목련상 조형물은 우리 대학의 교화인 목련을 오른손에 쥔 모습을 형상화한 것입니다. 활짝 핀 목련이 아닌, 꽃봉오리로서의 목련은 창의적이고 역동적으로 전개돼나갈 미래 인류의 문화세계를 상징합니다.

특별공로상



이건수 (주)동아일렉콤 회장

이건수 회장은 정치외교학과 60학번으로 젊은 시절 고난과 역경을 극복하고 사업에 성공한 입지전적 인물로, 후배들에게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긍지를 심어줬습니다. 또한 1976년 이래 국가정보통신 산업의 최첨단 통신용 시스템 개발을 주력 사업으로 지금의 동아일렉콤을 키워냈으며, 정보통신 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각종 상훈을 수상해 동문으로서의 자긍심을 제고했습니다.

동아일렉콤은 혁신적 기술과 앞선 경쟁력으로 에너지시스템 분야의 글로벌 선도 기업으로 성장했으며, 베트남 등 동남아 국가와의 협력 사업을 통해 우수한 외국인 학생들을 경희대학교에 유지하는 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이건수 회장은 경희대학교의 발전과 재학생들을 위한 장학 사업을 위해 거액의 발전기금을 수차례 쾌척했으며, 지금까지 수백 명의 장학생들이 재정적 어려움 없이 학업에 정진해 훌륭한 사회인으로 성장하는 데 도움을 줬습니다.

약력

경희대학교 명예경영학 박사, 미국 Fairleigh Dickinson University 명예인문학 박사, 경희대학교 총동문회 고문, 대한민국 ROTC 중앙회 장학재단 이사, 중국 아·태 경제무역협력 촉진회 명예이사, 전국경제인연합회 상임이사,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 부회장, 대통령 특사 고문, 한국전쟁기념재단 추진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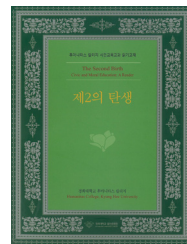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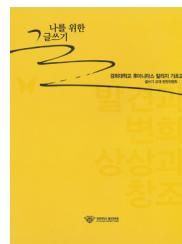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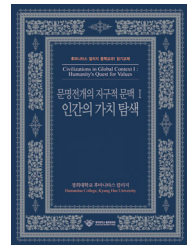
후마니타스칼리지

새로운 삶의 가치,
창조적 도전의 꿈, 그리고...

승자를 위한 교육 환경 속에서 환희와 불확실한 미래를 동시에 끌어안고 경희대학교에 입학한 여대생, 무역학과 1학년 강민지. 후마니타스칼리지의 다양한 교양교육은 그녀에게 자기 자신, 이웃, 문명에 대한 문제의식을 던져주었습니다.

한 인간의 가치를 고민하는 동시에 공동체의 의미도 깨닫게 이끌어준 중학교 과. 개인과 사회를 이어주는 관계의 네트워크를 표현하게 해준 글쓰기 교육, 글로벌 시민으로서 폭넓은 시야로 세상을 바라보게 도와준 시민교육.

경희에는 새로운 삶의 가치를 실현하고, 창조적 도전의 꿈을 펼칠 수 있는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양교육이 있습니다. 그리고... 범세계적 실천자로서 후마니타스칼리지는 세계 무대에서 그 이름을 굳건히 하는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경희의 꿈과 미래



경희대학교, 경희의료원, 강동경희대학교병원, 경희사이버대학이 공동으로 모든 구성원들의 마음을 모아 경희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성금캠페인을 시작합니다.

경희의 탁월성(교육·연구·인프라) 확보와 공공성(실천) 제고와 일반 시민의 경희를 통한 공적 실천을 구현합니다.

Education(Humanitas)

더 나은 세계와 새로운 인간에 대한 진리 탐구

Research

세상을 밝게 비추는 인류의 희망의 등불

Service

전 인류와 지구를 향한 나눔의 헌신

Space

자연과 인간의 조화, 지속가능한 캠퍼스

Health Care

질병 없는 평화로운 세상을 위한 경희의 약속

목련음악회

목련음악회는 경희 가족과 지역 주민, 국내외 시민을 위한 축제로, 대중성과 작품성을 고루 갖춘 음악으로 구성됩니다. 대학과 시민이 어우러져 송구영신의 의미를 함께하는 이 음악회는 대학의 문화예술 역량을 지역사회와 나누는 사회공헌 프로그램입니다.

음악대학 현악 8중주

음악대학 관현악과 교수진 및 학생들이 준비한 현악 8중주는 스승과 제자 간의 긴밀한 앙상블과 화합의 무대를 보여드립니다.

Mendelssohn **String Octet In E Flat Major, Op.20**
 멘델스존 현악 8중주 E flat Major Op.20

E flat 장조의 화사한 주제로 시작되는 1악장은 제시부-발전부-재현부의 소나타 형식을 충실히 따르고 있습니다. 제1바이올린의 비르투오조적 명인기를 비롯하여 8대의 악기에 의해 번갈아가며 연주되는 주제를 통하여 앙상블의 묘미와 멘델스존의 천재성을 곳곳에서 느낄 수 있는 명곡입니다. 2개의 현악 4중주를 합쳐놓은 듯한 풍성한 음색과 유려한 선율이 특징입니다.

바이올린 김진승 박은환 김연경 김민진
 비올라 윤진원 이현직
 첼로 송영훈 박유신

경희 피스 재즈오케스트라

경희 피스 재즈오케스트라(Kyung Hee Peace Jazz Orchestra)는 경희대학교 포스트모던음악학과 임달균 교수의 지도 아래 우수한 연주 실력을 갖춘 재학생들이 모여 만든 대편성 재즈 빅밴드입니다. '세계평화와 인류의 문화 복지를 실현하는 데 기여한다'라는 UN 헌장에 기초한 경희대학교의 창학정신을 받들어 경희 '피스(Peace)' 재즈오케스트라로 명명했습니다.

Basie Straight Ahead 전설적인 재즈 피아니스트 Count Basie Orchestra의 곡입니다. 피아노 솔로에 이어지는 색소폰과 트럼펫의 웅장한 오케스트라는 리드미컬한 스윙감을 느끼게 해줍니다.

Come Fly With Me 미국 대중가수인 Frank Sinatra가 부른 노래로 오케스트라의 Call and Response를 느낄 수 있는 재즈의 명곡입니다.

Santa Claus Is Coming To Town
Christmas Carol Medley

음악감독 임달균
 연주 강승연 김보완 김 신 김영원 김재우 김지선 김현동 김혜미
 문용환 박동국 서대광 심유준 이기현 장지운 조정현 홍준표
 허 순 우성민(객원) 윤재형(객원)

Magnolia 연합 합창단

Magnolia 연합 합창단은 경희대학교, 경희의료원, 경희사이버대학교, 음악대학 성악과, 학생합창단 '글리' 등 교수·직원·학생이 연합하여 구성된 대합창단입니다. 이번 공연을 통해 경희 가족의 하나 된 모습을 보여드립니다.

You Raise Me Up

사랑이 필요한 거죠

지휘	윤정주									
반주	배현주									
소프라노	김나탈리아	김상임	김선희	김진숙	박성정	박영남	박영욱	박예원		
	박현순	박해준	성미경	송명희	양의금	오푸름	오현주	이길주		
알토	이미숙	이숙경	이지윤	장미내	정명숙	추아영	홍주영			
	길민선	김주란	김민경	박승혜	박정민	송은영	문향란	양수진		
	우미혜	이미숙	이 슨	이연지	전보금	정태숙	주진희	최필주		
테너	한미연	홍인경								
	강성완	강필정	권진안	김동환	김영낙	김종원	김현우	문병원		
	박기호	박윤호	박정우	백정현	송종민	신상기	안남일	양윤환		
베이스	윤준성	이인표	이종훈	한상백	황승연	허주영				
	김경수	김정원	김철우	김태우	남기원	박요셉	박정열	박정훈		
	방철호	백성선	성희섭	우현우	이경호	이병수	이지훈	장대일		
	탁우빈	홍건원								

The Muse

뮤지컬이라는 장르를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기 위해 창단된 The Muse는 경력이 풍부한 뮤지컬 배우들이 대중들에게 예술적 영감을 불어넣어주는 팀으로, 음악을 사랑하고 뮤지컬을 사랑하는 예술인들의 모임입니다.

뮤지컬 지킬 & 하이드, All That Jazz, 젊음의 행진, 스트릿 라이프, 맘마미아

대표	김희진									
뮤지컬 배우	강인영	도레미	유 연	이 든	이시유	이여울	이주언	정재현	황세준	

찬조 출연

포스트모던음악학과 **이예영** 2013년 세계 하모니카 대회(독일) 복음 독주 1위 World Champion

다비치 G,NA AOA

T O W A R D S G L O B A L E M I N E N C E



Magnolia 2013

Magnolia 2013은 경희의 전 구성원이 변화와 창조의 한 해를 돌아보고, 희망의 새해를 맞이하는 송구영신의 자리입니다. 올해로 다섯 번째를 맞이하는 이 행사는 안으로 배려와 존중의 대학문화를 형성하고, 밖으로 경희의 문화예술을 나누고자 마련한 자리입니다.
